



# [업계소식]

## ◆ LogisALL, 종합물류기업 인증 획득

한국파렛트풀(주), 한국컨테이너풀(주), 한국로지스풀(주) 제휴 인증심사 통과



LogisALL은 지난 12월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가 수여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파렛트풀(주) 김인호 부사장과 한국로지스풀(주) 안종운 부사장이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 구축 및 글로벌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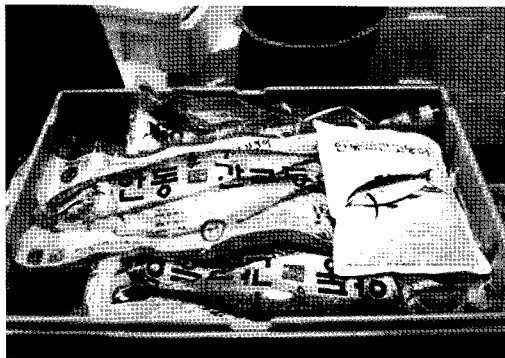
LogisALL은 한국파렛트풀(주), 한국컨테이너풀(주), 한국로지스풀(주) 3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3년간 사업체 체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 운송업 면허 취득, 직영차량 210대 확보, 운송관련 사업 매출 140억원(2008년 예상)의 실적을 거두어 인증 심사에서 통과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LogisALL은 물류시설 입주시 우선권, 물류시설 확충 시용자금 우선배정, 물류시설의 전기료 감면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아울러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져 치열한 물류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LogisALL은 이번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바탕으로 기존의 물류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수준을 높임으로써, 3PL 사업과 포워딩, 창고사업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 수산물 운송 포장의 새로운 진화

KCP, 스마트 컨테이너 국내 최초 개발



한국컨테이너폴(주)(대표 서병륜)에서 수산물 운송에 적합한 새로운 리터너블 포장 박스를 개발해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컨테이너폴(주)(KCP)에서 새롭게 개발해 출시한 Smart Container(모델명 : SB531)는 외부온도를 차단하고 내부 제품 온도는 장기간 보존 할 수 있는 보온, 보냉용 컨테이너로써, 다양한 분야의 운송 포장용 박스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산물 등의 포장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후 간단한 세척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성과 함께 환경성을 함께 갖추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 ◆ 골드라인 “자동화 물류시스템으로 세계 경영”

(주)로테코 계열사로 편입시켜 ... 해외시장 개척 박차

국내 중견 물류기기 종합기업인 (주)골드라인이 세계 최고 물류자동화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도 기업경영으로 끊임없는 물류혁신과 고객감동을 실천해온 (주)골드라인(대표 이흥기 회장, igoldline.kr)은 최근 계열사로 편입된 (주)로테코를 통해 자동화 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물류기기 기업으로써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수원 물류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고부가가치 물류기기 핵심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생산성향상은 물론 고객만족에 있어 더욱 차별화하고, 진보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물류자동화 전문기업인 로테코는 국내 시화 및 중국 청도공장과 더불어 작년 10월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대지 7,590㎡(2,300평)의 수원센터를 신축 준공했다. 로테코는 국내기업뿐 아니라 DHL 등 외국기업에 더욱 잘 알려져 있는 물류시스템 공급 기업으로, 일본 오미社 및 인도 뉴델리공항 프로젝트 등을 수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우편집중국시스템 및 물류터미널 설계시공, 제주공항 수하물용 컨베이어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로테코는 이번에 골드라인과 한 가족이 된 것을 계기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 (주)골드라인 2008년 광주 무역인상 기업대상 수상



(주)골드라인 2008년 광주광역시장 훈격 무역인상 표창 기업으로 선정/수상 물류혁신 고객감동의 차원높은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기업 골드라인이 지난 12월 22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거행된 2008 광주광역시 무역인상 수상 기업체로 선정되어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무역인상 표창을 수여 받았다.

본 시상식장에서 광주광역시장은 1등 문화수도 광주 건설에 앞장선 수상기업 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수출증진과 문화광주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 (주)골드라인파렛텍 2008 충청남도 수출탑 표창기업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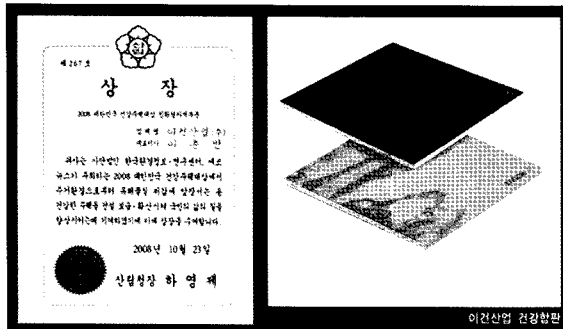
2008 충청남도 수출탑 표창기업 수상



플라스틱 불류기기 전문 기업으로 불류 표준화를 선도하는 (주)골드라인파렛텍이 2008년 충청남도 수출탑 표창 기업에 선정되어 지난 2008년 12월 3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어려운 국내의 경기 여건속에서도 수출을 통한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골드라인파렛텍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이견산업, 2008년 대한민국 건강주택자재 대상수상



이견산업이 한국환경정보 연구센터와 에코뉴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8년 건강주택 대상 친환경자재 부문을 수상하였다.

이견산업은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주거환경 유해물질 저감에 앞장섬으로써 건강주택 건설보급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발상률이 한국산업규격(0.3mg/L)이하인 건강합판, 자체개발한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탈형성과 전용흡수를 향상시킨 수퍼패널,하이퍼패널 이다.

## ◆ 이견산업, 남태평양 솔로몬군도에 베니어공장 준공



지난 2008년 12월 3일 이견산업이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현지에 합판용 원재료인 건조베니어(Dry Veneer)를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했다.

1990년 대 초반 시작한 솔로몬 조림사업의 초기에 심은 나무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마침내 제품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푸타기타 (Putagita)에 준공된 이 베니어 공장에서는 이견산업의 조림지역인 뉴조지아 섬 26,000ha (약 8,000만평)의 땅에서 조림되어 성장하고 있는 유칼립투스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매월 2,00㎡의 베니어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향후 6개월 간 현지 기술자 훈련 및 추가설비를 통해 생산량을 2배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이 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푸타기타항이나 인근 노로(Noro)항구로 이동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수출된다.

## ◆ 용마로지스(주) ISO 9001, ISO 14001 인증 획득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서비스 품질이 국제적인 표준규격과 경영수준에 부합됨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며, ISO 14001 인증제도는 환경규정준수 및 환경보존을 위한 업무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용마로지스(주)는 2008년 6월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ISO인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으며,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품질재단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26일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번 인증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표준화된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시스템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되어 고객서비스가 더욱 증진되며, 한 차원 높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 ◆ 용마로지스(주) 종합물류기업인증서 수여 및 경영전략발표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받아



정부가 선정 발표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 및 경영전략발표대회가 지난 12월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용마로지스 이원희 사장은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경영전략 발표대회는 YE Logis(용마로지스(주), (주)에코비스로지스틱스)를 비롯한 3개 기업(군)이 현재 사업현황과 함께 향후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세계적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각자 준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는 경쟁력있는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로 이번 제4차 종합물류기업에는 YE Logis(용마로지스(주), (주)에코비스로지

스틱스), 유니온스타로지스(태영상선(주), 우련통운(주)), HOPE 로지스틱스(농협물류, 동진상선(주), (주)쉬핑랜드, (주)천안물류), LogisALL(한국파렛트풀(주), 한국컨테이너풀(주), 한국로지스풀(주)) 이상 4개 기업(군)이 인증을 받았다.

## ◆ 두산인프라코어, 연간 8천대 규모 중국 휠로더공장 준공 굴삭기 및 휠로더 시장 석권을 통한 '중국 ISB산업 리더' 도약 전략



중국 굴삭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휠로더 시장에서 제2의 성공 신화 창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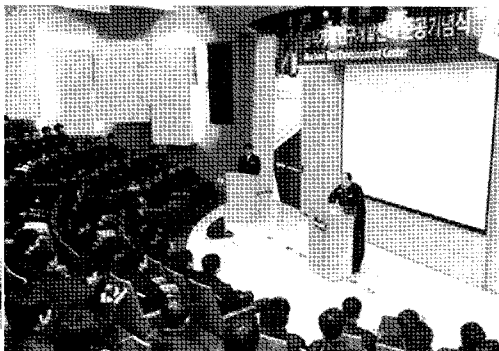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휠로더공장 준공으로 세계 최대의 건설중장비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굴삭기와 더불어 휠로더 시장을 본격 공략할 수 있는 생산 및 영업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인천공장(고급형)과 중국공장(보급형)의 글로벌 복수 생산체제 구축으로 시장별 맞춤 가격과 물량으로 휠로더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완공한 공장은 연면적 11만㎡, 연간 8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진 휠로더 전문 공장으로서 400여명의 종업원이 4개 모델의 중국형 휠로더 제품을 생산한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까지 2단계 공장 확장을 추진해 연간 1만8천대 규모의 대규모 휠로더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 ◆ 두산인프라코어, 국내 최대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 준공 공작기계분야 2012생산 2만 2천대, 매출 2조 2천억 달성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를 완공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창원 1공장에 미래형 공작기계 핵심기술을 담당할 연구개발센터 건설을 마무리하고 두산 박용성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최승철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870㎡ 규모로 최적의 연구환경을 위해 세련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로 꾸며졌고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3중 보안시스템도 갖췄다.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는 첨단 전자제어시스템을 바탕으로 복합-초정밀-고속화 기술융합 추세에 대응하는 미래형 공작기계 개발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국내 공작기계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 한·중·일 RFID 국제협력 본궤도 오른다

3국간 수출입 물류분야 RFID 공동사업 추진 논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한·중·일 3국간 수출입 물류 분야에서도 RFID 태그가 부착된 지능형 파렛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지난 2008년 11월 6일 'RFID/USN Korea 2008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 행사기간 중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중·일 RFID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3국간에 유통되는 수출입 파렛트 단위에 RFID를 적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동북아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RFID 분야에서도 시장확산과 활용, 기술개발 수준 측면에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민간차원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 특히, 중국의 경우 진품확인, 자산 및 물류 관리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협력채널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은 인천항과 중국 진황도간 해운물류부문에서 RFID 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김포공항과 나고야간 항공수화물을 대상으로 한 RFID 적용사업을 기획중이다.



## ◆ 4개 물류기업군 종합물류기업 인증

총 31개 기업인증...경쟁력 강화 도모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4개 물류기업군이 신규 종합물류 기업인증을 취득했다.

국토해양부는 유니온스타로지스와 HOPE로지스틱스, Logis All, YELOGIS 등 4개 물류기업군이 신규로 종합물류기업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기업군은 지난 2008년 12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경영전략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발전 비전과 사업전략을 발표하였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는 글로벌 물류기업에 경쟁력있는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로 올해 신규로 인증받은 기업군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1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2008년 인증의 특징은 인증형태가 4개 모두 전략적 제휴기업군으로 국내 물류기업들은 M&A를 통한 대형화와 서비스영역 확대보다는 중소물류기업들간 업무제휴를 통한 종합물류서비스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증기업은 태영상선(주)과 우련통운(주)이 제휴한 '유니온스타로지스', (주)농협물류와 동진상선(주), (주)쉬핑랜드, (주)천안물류가 제휴한 HOPE로지스틱스, 한국파렛트폴(주)와 한국컨테이너폴(주), 한국로지스폴(주)이 제휴한 LogisALL, 용마로지스(주)와 (주)에코비스로지스틱스가 제휴한 YELOGIS가 인증을 획득했다.

## ◆ 광양항 중국 석재화물 유치성공

연간 1만TEU 이상 신규물량 증대



광양항에 중국 석재화물이 들어온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5개 기관 공동으로 지난 2008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샤먼시와 수두시에서 광양항 석재화물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샤먼시와 '컨' 공단은 항만간 자매결연 협정과 한중국제기업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석재화물 유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석재화물 취급 증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중국 운남석재상회는 광양항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광양항 석재가공물류센터 홍보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석재가공 관련 30개 기업이 참석하여 광양항 투자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포트세일즈로 광양항에 연간 10,000TEU 이상의 신규물량 증대가 예상된다.

## ◆ 물류시설 개발 운영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년 12월말 국회 제출, 올해 9월 시행 예정

지난 2008년 8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했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를 올해 9월부터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하고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 부과 및 이행 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참조 : 8월 22일 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포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작년 12월말 국회에 제출,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물류협회, 물류사랑마라톤대회 3.1절에 개최

한겨레신문사와 대회 공동주최 업무협약 체결

KLA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2009년 3월 1일(일) 오전 10시 '한겨레·물류사랑 3.1절 마라톤대회'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한겨레신문사와 공

동주최로 개최한다고 지난 12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2회째를 맞는 대회는 범민족적 운동인 3.1절을 기념하면서, 국가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기 위해, '한겨레·물류사랑 3.1절 마라톤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되며 작년 12월 29일 공동주최기관인 한겨레신문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대회 개최계획이 공식 발표했다.

당초 협회는 2008년 2회 대회를 작년 11월 15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국내 경제 환경을 감안 부득이 내년 상반기로 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11월 17일 처음 개최된 물류사랑 마라톤 대회는 일반 국민들에게 물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물류부문 종사자들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물류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과 협력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대회에서는 내년 대회 개최지와 동일한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과 한강공원 일대에서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삼성전자로지텍, 글로비스, 로지스올 등 77개 물류기업과 다수의 국내 마라톤 동호회가 참가해 2,700여명이 5km, 10km, 하프코스를 달리며 화합의 장을 연출한 바 있다.